

# 美 마이크론 영업익 100% 이상 ↑ K반도체, 2분기 '대박실적' 가시화

마이크론 실적, 시장 전망치 웃돌아  
같은 메모리반도체 기업 전망 '맑음'  
증권사, 삼성전 DS 영업익 7조대 추정



마이크론 176단 낸드 플래시 /마이크론

전자업계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하면서 1분기를 뛰어넘는 '대박' 징조도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론은 3분기 (3~5월) 실적을 6월 3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매출액은 74억2000만달러(한화 약 8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17억9900만달러(약 2조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36%, 103%나 급등한 수치다. 시장 전망치도 웃돌았다.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 실적을 미리 가능해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공유하는 만큼,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방향이라는 것.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슈퍼사이클 궤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에 따른 서버와 IT 기기 수요 증가에 더해, 공급 계약을 갱신하면서 울어들어

조원대였던 1분기보다 2배 이상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다.

메모리 뿐 아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을 다시 열면서 수천억원대 손실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쇼트지 현상이 이어지면서 파운드리 사업 성장도 기대된다.

아울러 SK하이닉스도 2분기 영업이익이 2조원 후반대로 1조3244억원이었던 전분기 대비 2배 가량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기에 2분기 실적을 잠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매출 17조원 안팎,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30%, 120% 이상 많은 수치로, 2분기 기준 12년만에 1조원대 영업이익도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가전에 이어 올림픽 특수에 따른 TV 실적 상승에 더해, 폭염 예상에 따른 에어컨 판매 확대까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사업 손실도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중단영업손실'로 처리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효과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파르게 오른 가격을 반영하게 되면서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고정 거래 가격도 4월 전달 대비 27% 가까이 올랐다. 이후 일단은 가격이 정체된 상황이지만, 3분기에는 다시 10%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7일 전후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실적 발표 핵심은 DS부문이다. 1분기에는 저조한 성적에도 CE와 IM 부문 실적 향상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지만, 2분기부터는 IM 부문 실적이 다시 주저앉을 예정이어서 DS부문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 전망은 긍정적이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DS부문 영업이익이 6조원 후반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3

# “전사적 ESG경영 확대… 미래형 기업전환”

## 롯데 2021 하반기 VCM

CEO 평가 시 ESG 관리 성과 반영  
미래가치 담은 새 브랜드 슬로건 발표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지주

롯데가 1일 '2021 하반기 롯데 VCM(가치창조미팅)'을 열고, 하반기 그룹 전략방향성을 모색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비대면 회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VCM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송용덕·이동우 롯데지주 대표, 4개 부문 BU(비즈니스 유닛)장, 각 사 대표이사 및 임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VCM에서는 ▲상반기 경영실적 리뷰 및 주요 현안 ▲하반기 경제전망 및 경영환경 분석 ▲식품·유통·화학·호텔 & 서비스 BU별 사업전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졌다.

롯데는 이날 VCM에서 별도의 'ESG 경영 선포식'을 열고, 전사적 ESG 경영 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 선언은 ▲2040년 탄소중립 달성 ▲상장계열사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구성 추진 ▲CEO 평가 시 ESG 관리 성과 반영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롯데는 204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 및 친환경 기여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공정 효율화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기술 적용 및 친환경 사업을 통해 완전한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상장계열사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사 CEO 평가에 ESG 경영 성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ESG경영 전담 조직도 구성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롯데지주는 그룹 차원의 ESG 전략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영혁신실 산하에 ESG팀을 신

설했다. 경영혁신실은 ESG팀을 중심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 성과관리 프로세스 수립 및 모니터링, ESG 정보 공시 및 외부 평가 대응 등을 진행한다.

이번 VCM에서는 롯데의 미래가치를 담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New Today, Better Tomorrow)'도 발표했다. 이 슬로건에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에게 이로운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형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최근들어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삶을 혁신하는 생활변화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롯데는 일상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업 역할을 강조한 슬로건을 도출했다. 롯데는 연내 새로운 슬로건을 중심으로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사에 안전관리, 컴플라이언스 등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비도 촉구했다. 롯데지주는 '그룹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중대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대응 능력 향상을 강조했다. 이 혁신방안을 통해 각 사 안전관리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격상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생산·마케팅 시스템, 세계 탑클래스 수준 정비”

## 신동원 농심 회장 취임

취임 메시지 통해 더 좋은 성장 강조  
“고객·직원 눈높이 맞춘 기업활동 강화”



신동원 농심 회장 /농심

농심 신동원 부회장이 7월 1일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농심은 최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회장 선임 안건을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심은 신동원 회장을 중심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New 농심'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경제·시장·유통 환경이 더욱 불확실하게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승과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는 것이다.

신동원 회장은 이날 국내외 그룹 임직원에게 전한 취임 메시지에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과 '국내의 사업의 레벨업' 등 외형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성장'을 강조했다.

◆고객가치 최우선… 새로운 기업 슬로건과 ESG 경영

농심은 신동원 회장 취임과 함께 기업 슬로건을 '인생을 맛있게, 농심'(Lovely Life Lovely Food)으로 바꾼다. 신뢰받는 품질과 맛, 식품 안전에 대한 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객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식품은 맛을 넘어 경험과 관계, 공감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만큼 고객의 생활 전반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동원 회장은 “보다 수평적인 기업 문화 조성과 디지털 기반의 업무 혁신도 고객가치의 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객과 직원의 눈높이에 맞춘 기업경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내외 사업의 지평 확대

신동원 회장은 취임 메시지에서 ‘고객에게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라면의 가치를 레벨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질면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식문화를 위한 라면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농심 관계자는 “1인 가구 및 노인 인구의 증가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품과 MZ 세대 등 새로운 취향을 반영한 제품의 개발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식품산업에서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콜라겐 등의 건강기능식품과 대체육 등은 농심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규사업 분야다. 농심은 사내외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면서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지원하는 한편, 신사업 진출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농심은 후 브랜드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여왔고 실적을 이루어냈다. 신동원 회장은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라면기업 5위라는 지금의 성적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생산과 마케팅 시스템을 세계 탑클래스로 재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농심은 연말 미국 제2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제2공장은 봉지면 1개 라인과 용기면 2개 라인이 우선 설치된다. 모두 고속 생산 라인으로 연간 약 3억 5000만개의 라면을 더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제1공장 생산량까지 합치면 연간 생산량은 총 8억 5000만개에 이른다. 농심은 생산량 증대로 현재 30%대인 해외매출 비중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1958년 1월생인 신 회장은 1979년 12월 주식회사 농심에 입사하여 1988년 농심 이사, 1992년 농심 상무이사, 1994년 농심 전무이사, 1996년 농심 부사장, 1997년 농심 국제대표이사 사장, 농심 대표이사 사장, 2000년 농심 대표이사 부회장을 거친 뒤 2021년 7월 농심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NH농협금융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은행업무 전반 ESG 경영 강화

NH농협금융은 지주와 은행이 협력해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에 가입하고, 책임은행원칙(PRB) 이행을 선언했다고 1일 밝혔다.

UNEP FI는 유엔환경계획과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1992년도에 결성한 국제적 파트너십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금융기관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중추적인 협약이다.

특히 책임은행원칙(PRB)은 파리기후협약과 UN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금융원칙이다.

농협금융은 이번 UNEP FI 가입에 따라 환경·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전략, 상품·서비스 등 은행업무 전반에 책임은행원칙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책임은행원칙(PRB) 이행을 위해 핵심사업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환경·사회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을 위한 목표·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농협금융은 UNEP FI 가입을 시작으로 그룹 차원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단계적으로 가입을 확대해 나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

금융지주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 등 탄소중립 관련 공신력 있는 국제협약에 참여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환경·사회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 중이다. 보험은 ‘지속가능보험원칙(UNEP FI-PSI)’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손병환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글로벌 차원의 최우선 과제”라며 “농협금융은 선제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